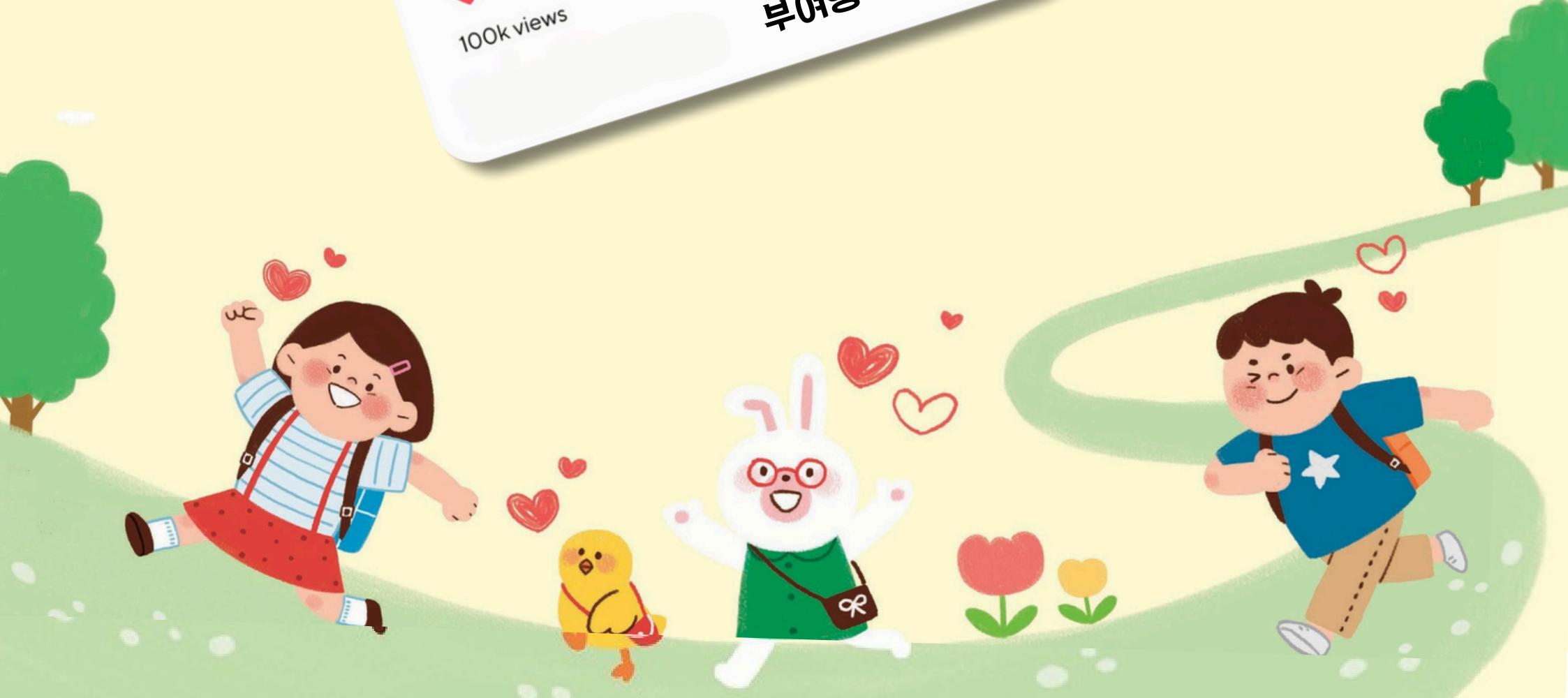


#Buyeo

행복교육지구 소식지





마을교육 소식지의 창간을 축하하며



안녕하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석연입니다.

부여마을교육공동체 소식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소식지는 학교와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담아내며,
부여의 마을교육공동체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희망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부여마을교육공동체는 9개의 마을학교, 49명의 마을교사,
20개의 마을체험처, 그리고 7개의 마을교육과정 운영교와 함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와 마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이들의 배움을 확장하고,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교육
의 책임을 나누는 귀중한 성과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은 ‘행복한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부여교육’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민·관·학이 함께 협력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 마을교육과정 운영,
마을체험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행복교육지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소식지 창간을 계기로 마을교육공동체의 성과가 널리 공유되고, 더 많은 학생·학부모·지역 주민이 마을교육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부여교육지원청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식지 창간을 축하드리며 이 소식지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응원하는 따뜻한 기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석연**

마을교육 소식지의 출발을 기리며

안녕하십니까.
부여마을교육공동체포럼 대표 김대열입니다.

우리 부여마을교육공동체가 첫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어 큰 기쁨과 설렘을 느낍니다.
이번 소식지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 가는 다양한 배움의 이야기와, 지역의 소중한 교육 자원을 담아내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부여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 풍요로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이 자원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학부모와 교사,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식지는 그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더 많은 이들이 마을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를 넘어 ‘온마을 배움터’라는 비전 아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돋고, 마을의 둘봄 기능을 강화하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걸음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소식지가 우리 모두의 따뜻한
배움과 성장을 기록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여마을교육
공동체는 **민·관·학이 협력하는 열린 배움터**로서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마을교육공동체 포럼 대표 **김대열**





꿈을 품은 아이들, 마을에서 자라다 **세도꿈꾸는 마을학교**



'세도꿈꾸는마을학교'는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며, 마을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채로운 체험과 배움을 통해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협력·공감·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성과 역량을 길러 주기 위해 노력한다.

세도꿈꾸는마을학교는 세도면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2017년 작은 공부방으로 시작하여 2018년 부여행복교육지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9년에는 세도면 주민자치회와 협업하며 현재의 명칭을 얻었고,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2024년에는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센터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현재 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세도초등학교, 세도중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총 35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흥미와 성장을 돋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제과제빵, 방송댄스, 가야금, IT교실, 토탈공예 등 폭넓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세도면 주민자치회 제빵실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요리 수업은 마을과 아이들의 활발한 소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세도꿈꾸는마을학교는 마을 전체가 배움터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매년 3.1절 행사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벼꽃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내기와 벼 베기를 체험하는 등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을학교 활동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아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재능과 경험을 통해 살아있는 현장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세도꿈꾸는마을학교는 앞으로도 학생 주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로서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다.



아미골에서 높게 피어나는 성장의 꿈, **외산아미골 마을학교**



외산면에 위치한 ‘외산아미골마을학교’는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가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다. 2021년 1월에 설립되어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외산초등학교 학생 20명과 미취학 아동 1명 등 총 21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외산아미골마을학교는 아이들이 하교 후에도 안전하게 머물며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 학습 지도와 놀이 활동, 간식 제공 등 기본적인 돌봄 프로그램과 더불어 독서논술, 드로잉, 공예,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주말에는 ‘학교 밖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하여 주중과는 또 다른 배움과 체험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외산초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텃밭교실,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과정을 확장·심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마을교사들은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지도 자격을 꾸준히 취득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매년 1박 2일 캠프와 교육가족이 함께 하는 평가회를 열어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외산아미골마을학교는 2022년 방과후학교 우수 사례 선정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고, 2023년 충남형 온종일돌봄 활성화 유공 도지사상을 받는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우수 사례로 인정 받고 있다. 졸업한 학생들도 다시 찾아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미골은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키우는 모범적인 마을교육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산아미골마을학교는 앞으로 초등학생을 넘어 중·고등학생까지 품을 수 있는 돌봄과 배움의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미골협동조합과 작은도서관 등 지역 인프라와 협력을 강화하고, 부여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부여 마을교육공동체 체험처



다육이야기 & 그담공방

그릇에 의미를 담은

'그담공방'

마을이 배움터가 되다



자연과 예술로 배우다

&

마을이 된 배움터

‘다육이야기 & 그담공방’은 부여읍 정동로의 조용한 골목길 한켠에 위치한 흙 내음과 초록빛 식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배움의 공간이다. 2021년 9월 문을 연 이곳은 부여군 체험학습 협의회 활동과 교육부 인증을 통해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매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600명의 학생이 방문하고 있다.

‘그담공방’ 박관용 대표는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귀촌한 후, 공예를 배우며 이 공방을 열었다. ‘그담’은 ‘그림을 담은 도자기’라는 의미로 아이들이 도자기에 각자의 이야기를 그리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공방의 체험 활동은 단순한 만들기를 넘어 자연과 예술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의 대표 프로그램인 다육식물 심기 체험은 아이들이 생명체와 교감하고 스스로 돌보는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육 정원 만들기’, ‘블록화분 다육심기’ 등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활동이 마련되어 있으며, 흙을 만져서 컵이나 접시를 만드는 생활 도자기 만들기, 유리컵 디자인, 폴리머클레이 악세서리 제작 등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강사들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결과물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과 자존감 향상을 이 체험의 가장 큰 교육적 효과로 꼽는다.



공방은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 위(Wee) 클래스 학생, 복지관 이용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열려 있다. 박 대표는 “조용한 마을 풍경 속에서 아이들이 집중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마을 전체가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폴리머클레이 악세서리 만들기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그는 “아이들의 그림에는 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전했다.

‘다육이야기 & 그담공방’은 교실을 넘어 마을 가 배움의 공간이 되는 교육의 확장 모델이다. 도자기와 다육식물, 흙과 색이 어우러진 이곳은 단순한 체험처를 넘어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고 교사와 지역이 함께 호흡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따뜻한 현장이 되고 있다.





부여 마을교육공동체 체험처

부여 아트센터

**예술로 이어지는
마을과 학교의 따뜻한 연결고리**



지역과 예술을 있는 마을교육체험처

마을과 함께 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부여아트센터는 지역민과 학생이 함께 예술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마을교육체험처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22년 전시와 공연, 음악회를 중심으로 마을과 함께 하는 문화 활동을 시작한 이래, 센터는 교육과 예술, 공동체의 경계를 허물며 지역 속 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센터를 이끄는 연선미 대표는 일러스트 작가이자 예술 강사로, 공예와 북아트,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여교육지원청, 세도면 등과 협력하여 부여여자중학교, 궁남초등학교, 세도마을학교 등 여러 학교와 교육기관에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는 200여 명에 달한다.

예술성과 감성을 키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부여아트센터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도자기 핸드 페인팅, 민화 그리기, 팝아트, 북 바인딩, 가죽 공예, 냅킨 아트, 염색 공예, 푸드 아트 등이 있다. 특히 백자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굽는 ‘도자기 핸드 페인팅’은 많은 학생에게 인기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예술적 표현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호응이 높다. 계절에 따라 세도면 물레길을 걸으며 자연물을 관찰하는 생태 산책,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교육 자원으로 삼는 좋은 사례이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예술로 하나되는 마을 공동체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프로그램 운영 후 세도자치센터에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 축제도 성황리에 열렸다. 마을과 예술이 어우러진 이 경험은 교육의 장을 넘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부여아트센터는 단순한 체험처를 넘어, ‘예술을 통한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가치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예술을 배우고, 마을은 교육의 장이 되며, 예술가는 그 모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마을교육 이모저모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황석연)은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향토사 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백제 품은 사비를 거닐다」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부여교육지원청, 부여군청,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 문화유산연구소,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부여 마을교육공동체 포함의 여섯 기관 및 단체장이 참석하여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향토사 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 기반 조성, 자료 및 정보의 상호 공유, 지역화 교육자료 개발 협력 및 수업 지원,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현장의 향토사 교육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부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바른 인성과 올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섯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지역 기반 혁신미래교육의 확산과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여 교육지원청과 협약 기관 간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부여교육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황석연)은 지난 21일, 부여군유스호스텔 실내체육관에서 부여지역 9개 마을학교가 참여한 「온마을 온학생 체육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협력하고 소통하며 마을 전체가 하나 되는 '화합의 축제'로 진행되었다.

세도 꿈꾸는 마을학교, 외산 아미골 마을학교, 소부리 마을학교, 은산 꿈동산 마을학교, 내산 띠앗마을학교, 백강마을학교, 규암누리마을학교, 송간 마을학교, 부여읍 주민자치회 예비마을학교 등에서 초·중·고 학생 175명과 마을학교 교사 35명, 학부모 63명 등 총 273명이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진정한 마을 축제를 만들어 냈다.

체육한마당은 ▲이벤트 달리기 ▲신나는 응원전 ▲손에 손잡고 등 모두가 웃고 뛰며 참여할 수 있는 10개의 다채로운 체육 경기로 구성되었다. 또한 마을학교별 장기자랑과 전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놀이로 절정의 흥을 더했다. 학생은 물론 마을교사, 학부모가 모두 적극적으로 경기에 참여하여 서로 응원하고 협력하는 모습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 주었다.

황석연 교육장은 "마을 전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활동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놀 이를 넘어, 공동체 의식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부여교육지원청은 지역과 함께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돋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여교육지원청 중점사업 「백제 품은 사비를 거닐다」
향토사 교육 연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

2023. 4.(금) 11:00 부여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부여군청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유산관리처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부여마을교육공동체

부여군 주민자치회 예비마을학교

부여군 청년회



역사를 되짚다!

나도 고고학자~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와 함께하는 향토사교육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황석연)은 국립부여문화유산 연구소와 협력하여 5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부여군 관북리 유적에서 총 15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나도 고고학자’라는 체험형 고고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교육은 백제 유산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고 역사적·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전학습-현장학습-사후학습의 3단계 학습 체계를 도입하여 더욱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였다.

사전 학습에서는 ‘두찌와 떠나는 관북리 미스터리’ 영상을 시청하며 배경지식을 습득하였다. 이후 관북리 유적을 직접 방문하여 관찰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사후 학습에서는 팝업북 만들기, 상상화 그리기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고고학 가치에 대해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부여교육지원청 황석연 교육장은 “업무협약(MOU)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다양한 교육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향토사 수업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